

“공익정신 함양...사회적 약자 인권신장 기여”

광주변호사회 '제6회 흥남순 인권상' 김수정 변호사 선정 제도 개선 노력 인정...양심 자유, 女·아동 인권 보호 공로

“앞으로도 인권상 시상으로 공익정신 함양과 인권 신장·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78차 정기총회에서 제6회 흥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수정(56·연수원 30기·사건 가운데) 변호사를 선정, 시상했다.

흥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지난 2018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일평생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바친 고(故) 흥남순 변호사의 업적과 뜻을 계승해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 및 공익활동에 헌신한 변호사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 치하하기 위해 제정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 ▲낙태죄 위헌소송 공동 대리인단 단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론 및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참여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1970-1980년대 20여만명의 아이들을 해외 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추방된 해외입양아 소송과 실종 아동 불법 해외입양 사건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분야 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비서실위원, 한국여성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20여년 동안 양심의 자유, 여성 및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



해 힘써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변호사는 2006년과 201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수여하는 성평등 디딤돌상 수상을 비롯해 2019년 양성평등진흥공공자 대통령 표창, 2020년 대한변호사회회 공익대상, 2022년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을 수

상한 바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적극 활동 중인 변호사들을 발굴하고 있다”며 “인권상 시상을 통해 공익정신을 함양하고, 인권신장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영 기자



보성경찰, 설 명절 범죄 예방·전략회의

보성경찰서는 22일 “설 명절 연휴 기간 특별치안활동을 위해 범죄 예방 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경찰서장 주재로 모든 과 계장 및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 연휴 집중되는 범죄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은경 보성경찰서장은 “이번 설 연휴기간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서민 생활 침해형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연 기자



구례 읍내파출소, 현금다액 취급업소 특별방범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는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편의점,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방범과 협력 치안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방범 활동은 관내에 위치한 금융기관,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 다액 취급업소를 방문해 비상벨 및 CCTV의 작동 상태를 진단하고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을 홍보한다.

또 구례읍 자율방범대, 구례여성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쳤다.

홍영진 읍내파출소장은 “설 연휴 기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 친화적 순찰을 통해 특별치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영암경찰, 세한대 외국인 유학생 범죄예방교실

영암경찰서는 22일 “전남 세한대학교 구암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범죄 신고 요령 및 외국인이 꼭 알아야 하는 범죄 유형을 주제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법규·사기·도박·마약·스토킹 등의 외국인에게 취약한 범죄 유형을 안내하고 설 연휴기간 폭죽 사용 관련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

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유학생을 비롯한 체류 외국인이 한국의 법과 문화를 이해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광주시, 직원 대상 ‘설 명절 청렴 캠페인’

광주시는 22일 오전 시청 1층에서 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설을 앞두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기정 시장과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동참했다.

캠페인에서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음주운전 근절’ 다짐과 청렴홍보물 ‘함께 만드는 청렴한 세상’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보조배터리를 배부했다. /변은진 기자

강기정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직자들이 청렴한 광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정이 곧 청렴인 만큼 공정한 광주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최고등급 달성을 위해 전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강점은 더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부문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동구자원봉사센터 ‘설 명절 꾸러미 온기 나눔’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22일 ‘2025년 설 명절 꾸러미 온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좁도리 정신’으로 뭉친 동구자원봉사센터 소속 법인 회원과 빛고을신협 조합원들이 설 고유의 음식인 떡국 재료와 환과 등이 담긴 꾸러미를 제작해 명절 선물세트와 함께 ▲다시서기지원센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에 기탁했다.

쪽방촌 주민 구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저소득층 공양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각각의 전달 기관들은 이날 수혜 대상자들에게 설 명절 꾸러미와 선물세트를 전

달했다.

쪽방촌에 거주하는 박모(74)씨는 “작은 방 안에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다”며 “잊지 않고 챙겨줘서 외롭지 않은 명절이 될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상권 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설을 맞아 법인 회원들과 이주형 빛고을신협 이사장님이 심시일반 도와준 덕분에 나눔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달된 꾸러미가 쪽방촌 주민들과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영 기자

농어촌공 나주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는 22일 “지난 20일 전통시장을 찾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은퇴농업인의 농지를 이양받아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이다.

농지를 이양하면 은퇴직불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데 올해는 일시지급형이 신설돼 연령별 지급을 적용 후 일시 지급도 가능하다.

은퇴직불금은 농지를 즉시 매도하는 경우 1ha당 50만원, 일정 기간 농지 임대 및 농지연금 수령 후 매도하는 경우 1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보조금 지급 요건·지급액은 유선 또는



는 방문 상담으로 확인 가능하다.

강수진 지사장은 “올 한해도 은퇴를 준비하는 농업인과 농지 확보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이어줘 농업의 세대교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전남개발공사,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전남개발공사가 교육부의 ‘교육 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수준 높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22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발사업 실무 사례와 노하우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남지역 중 고등학생들에게 산업 현장 견학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 안전한 현장을 위한 위험 관리·예방기술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모 사장은 “교육 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서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농협 담양군지부,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는 “설 명절을 맞아 최근 담양군과 함께 창평전통임시시장을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병도 담양군수를 비롯해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박종원·이규현 전남도의원, 박민서 군의원, 이종철 창평면장, 이광재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 이현 담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설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고객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문구가 부착된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또 전통시장 장북기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이광재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모두가 웃음꽃 가득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올해도 담양군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만6천822건, 23억2000만원 상당을 모금하며 전국 군 단위 1위, 전남도 1위를 차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하재욱 제58대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취임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전날 제57대 장정희 회장 이임식 및 제58대 하재욱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제78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이·취임식에서 장정희 회장은 신임 하재욱 회장에게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기와 의사봉을 인수인계했다.

장정희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회가 화합과 발전을 이루고 지역 사회에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임 하재욱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회장의 직분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기 동안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초석으로 삼아 초심과 경청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고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영 기자

인사

전남도교육청 ◇6급 전보 ▲나홍현 감사관 ▲노진현 감사관 ▲정수미 목포도서관 ▲이상천 무안교육지원청 ▲김근철 안전복지과 ▲이지영 보성교육지원청 ▲김영대 무안교육지원청 ▲이승환 강진교육지원청 ◇6급 승진 ▲이경주 고흥고 행정실장 ▲문은정 광영고 행정실장 ▲정영태 담양고 행정실장 ▲김봉현 전남자연과학고 행정실장 ▲김인 목포여고 행정실장 ▲류재윤 광양백운고 행정실장

부음

▲신질순씨 별세, 김재식(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씨 모친상=발인 23일(목) 오전 6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만평장례식장 202호(062-611-0000).